



이유진 국어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20 지방직 9급 국어(B책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박문각
이유진 기출코드, 박문각
이유진 예상코드, 박문각
이유진 NEW 화제의 모의고사 시리즈
이유진 30일 매일 볼투모의고사
이유진 필사즉생 진전 모의고사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맛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형부터 먼저 해라.
- ② 채훈이는 오로지 뺑만 좋아한다.
- ③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뻔더러 무척 부지런하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의미론 - 의미의 중복

★ 정답 해설:

‘그는 예의가 바를뻔더러 무척 부지런하다’의 ‘-ㄴ뻔더러’는 ‘어떤 일이 그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의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ㄴ뻔더러’와 ‘무척’ 사이에는 의미의 중복이 없다.

★ 오답 해설:

- ① 조사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부사 ‘먼저’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조사 ‘부터’에 이미 ‘범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부터’와 ‘먼저’ 사이에는 의미의 중복이 있다.
- ② 부사 ‘오로지’는 ‘오직 한 곳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조사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므로 두 단어 사이에는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의미의 중복이 있다.
- ③ 조사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 ‘각각’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의 뜻이다. 이미 부사 ‘각각’에 ‘마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다’와 ‘각각’ 사이에는 의미의 중복이 있다.

문 2.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 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장: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김 대리: 박 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해 달라졌어요.

이 부장: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니다.

-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공손성의 원리

★ 정답 해설:

대화에서 이 부장은 김 대리가 늦은 것을 탓하지 않고 최 대리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약속에 늦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선지의 ‘부담’이라는 표현을 ‘미안함’으로 해석하면 정답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나, 본래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에서 말하는 ‘부담’은 화자가 뭔가 요청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찬동의 격률’로 보아야 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동의를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관용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찬동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공손한 어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중 어법’이라고도 한다.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이 있다.

-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중하고 공손한 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다.
- 관용의 격률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격률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자신이 떠맡음으로써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이다.
- 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겸양의 격률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동의를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문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 정답: ① - 독해(작문) - 글쓰기 계획과 자료 활용

★ 정답 해설:

게임 업체로부터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발송된 경우는 개인 정보 보호 관리나 인터넷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하려는 글의 주제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오답 해설:

-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 증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자료이다.
- ③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자료이다.
-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예산의 부족’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 ③ 예산을 대충 견갑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 정답: ①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어휘 - 혼동 어휘

★ 정답 해설:

제시된 문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므로 동사 ‘하다’ 뒤에 어미 ‘-노라고’가 결합한 ‘하노라고’를 적는 것이 옳다.

- ‘-노라고’: 「어미」(동사 어간 뒤에 붙어)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 ‘-느라고’: 「어미」(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거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영화는 웃음을 참느라고 탄 태를 보았다. / 철수는 어제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 먼 길을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참고) 한글 맞춤법 제57항

가름	둘로 <u>가름</u>	감음	새 책상으로 <u>갈음</u> 하였다.
거름	풀을 썬 <u>거름</u>	걸음	<u>빠른 걸음</u>
견갑다	<u>견갑</u> 수 없는 상태	견잡다	<u>견잡아서</u> 이를 걸릴 일
하노라고	<u>하노라고</u> 한 것이 이것이다.	하느라고	<u>공부하느라고</u> 밤을 새웠다.

★ 오답 해설:

② 제시된 문장은 ‘제출한 안전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대금을 주고 받아서 거래 관계를 끝맺는다는 뜻’이므로 ‘결제된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X) → 결제된다.(O)

- 결제하다: 【…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전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다.

예 서류를 결제하다.

- 결제하다: 【…을】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내다.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다.

예 그 회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다.

③ 제시된 문장은 예산을 겹으로만 보고 대강 짐작하여 해아리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뜻이므로 ‘겹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해아리다.’라는 뜻의 ‘겹잡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예산을 대충 겹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X) → 겹잡아서(O)

- 겹잡다: 【…을】 (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

「1」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예 겹잡 수 없는 사태. / 불길이 겹잡 수 없이 번져 나갔다.

「2」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

예 겹잡 수 없이 흐르는 눈물.

- 겹잡다: 【…을】 겹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해아리다.

예 겹잡아도 일주일만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다 하라고 하니 일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어쩔지 않는 말 안 해도 뻔하지. / 예산을 대충 겹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④ 제시된 문장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이므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의 뜻인 ‘갈음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X) → 갈음합니다.(O)

- 가름하다: 【…을】

「1」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2」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예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갈음하다: 【…을 …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문 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잔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파리 끈 입에 물고 삼켜 들어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지요. 녀석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혹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 ②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과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
어 먹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지요.’를 통해 ‘이웃 간의 배려’를 느낄 수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
지는 찾아볼 수 없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
현하는 것이다. ‘미나리가 푸르고’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잘도 썩어
구린내 혹 풍겼지요.’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나 감각의 전
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샘’은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쌓고 느끼게 해 주는 매개체이다.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넉넉하지 않은 물을 네 집의 이웃들이 서로 배
려하고 양보하며 나눠 먹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들을 수 있었지요.’, ‘길어 먹었지요.’, ‘볼 수 있었지요.’ 등 과거
시제를 통해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④ ‘~지요.’, ‘~구요.’ 등 구어체의 종결 방식을 통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투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작품 해설: 함민복, <그 샘>

- 해제: 이 시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
려함으로써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샘’은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쌓고 느끼게 해
주는 매개체이다. 화자는 물이 넉넉하지 않은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먹었던 과거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향이 바람
직한 공동체이자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한 ‘-지요’, ‘-구요’의 사용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나리
의 ‘푸르다’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감자의 ‘구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
해 고향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바람직한 공동체의 삶,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

- 특징: 구어체의 종결 방식을 통해 정감 어린 분위기를 형성함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골 마을의 훈훈한 인정을 드러냄

문 6.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
들에게 해염처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
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
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
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
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주제

★ 정답 해설:

첫째 문단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
숙한 동물들의 행동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그 환경의 변형이 능동적
인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문단은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하
게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 즉, ‘생명체는 자
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개조시키며,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 지문의 주장이다. 따라서, ‘생명
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는 선지가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
절하다.

★ 오답 해설:

① 둘째 문단의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를 통해 인간이 단순한 적응을 넘
어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조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환
경에 적응해 왔다’는 진술은 지문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또한, 인간의 세 가지 충동은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단순한 생존과는 구별되는 충동이 존재한다. 따
라서,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지문의 주장과 거
리가 멀다.

④ ‘인간이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라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지문의 주요 개념인 ‘능동’에 대한 내용이 없고 논의의 대상을 생명체
전체가 아니라 인간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 7.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쉴 생각이다.
- ③ 일에 서툼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
-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

★ 정답: ① - 이문 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 정답 해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
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따
라 ‘머무르다’와 ‘머물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하지만 준말 뒤
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문장에서 ‘머물었다’로 적는 것은 옳지 않다.

‘머무르다’의 어간 ‘머무르-’에 모음 어미가 오면 ‘르’가 모음 어미 앞
에서 ‘ㄹ’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머물렀다’로 적는
것이 옳다.

참고) 표준어 규정 제16항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본말	준말	비고
머무르다	머물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 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 오답 해설:

- ② '머무르면서'는 '머무르다'의 어간에 어미 '-면서'가 결합한 형태로 옳은 표기이다.
- ③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따라 '서투르다'와 '서툴다'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서툰'은 준말인 '서툴다'의 어간에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인데 어미 '-ㄴ'이 모음 어미가 아니므로 적절한 활용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서투르다'의 활용형인 '서투른'과 '서툴다'의 활용형인 '서툰' 둘 다 옳은 표기이다.
- ④ '서투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이므로 어간 뒤에 어미 '-(으)므로'가 결합할 때는 '서투르므로'와 같이 적는다.

문 8.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 ① 兔死狗烹 ② 捲土重來
③ 手不釋卷 ④ 我田引水

★ 정답: ② - 어휘 - 한자 성어

★ 정답 해설:

A사가 신제품의 성공으로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한 상황은 '한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의미하는 '捲土重來(권토중래)'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捲土重來(권토중래)

- 「1」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2」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捲 말 권, 土 흙 토, 重 무거울 중, 來 올 래

★ 오답 해설:

- ① 兔死狗烹(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兔 토끼 토, 死 죽을 사, 狗 개 구, 烹 삶을 펴
③ 手不釋卷(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手 손 수, 不 아닐 불, 釋 풀 석, 卷 책 권
④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我 나 아, 田 밭 전, 引 끌 인, 水 물 수

문 9.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주제

★ 정답 해설:

첫째 문단은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원본을 보려는 이유를 제시한 뒤, 사진과 회화를 구별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둘째 문단은 그러한 사람들의 경향과 다르게, 사진의 경우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설명한다. 즉, 지문은 사진의 경우에 복제본이 원본과는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선지가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원본과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 비교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② 둘째 문단에서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둘째 문단의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통해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 10.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 遺棄하고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 根絶되는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 投棄하고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 拋棄해야

★ 정답: ③ - 어휘 - 한자어

★ 정답 해설:

‘쓰레기를 내던져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投棄하다(투기하다)’가 적절하다.

投棄하다(투기하다): 내던져 버리다. ㄴ투사하다.

- 쓰레기를 투기하다.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 오답 해설:

① ‘꿈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拋棄하다(포기하다)’가 적절하다.

遺棄하다(유기하다): 내다 버리다.

- 시체를 유기하다.
-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지성인의 사회적 책임을 유기하는 행위이다.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② ‘반려견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遺棄하다(유기하다)’가 적절하다.

根絶되다(근절되다):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리다.

- 앞으로 이와 같은 폐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그들의 부정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는 철저히 근절되고 가차 없이 처단되어야 마땅하다.

根 뿌리 근, 絶 끊을 절

④ ‘나쁜 습관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根絶하다(근절하다)’나 ‘矯正(교정)하다’가 적절하다.

拋棄하다(포기하다)

「1」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 진학을 포기하다. / 출마를 포기하다. / 출전을 포기하다.

「2」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다.

-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 이 집을 계약하고 싶으면 먼저 계약했던 전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문 11. 다음 글의 ㉠ ~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펼쳐지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물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펼치고’로 수정한다.
-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 ④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 정답: ① - 독해(작문) - 고쳐쓰기

★ 정답 해설:

‘꿈허지다’는 ‘꿈다’의 어간 ‘꿈-’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파생적 피동을 이룬 뒤,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하여 통사적 피동을 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을 해소하여 ‘꿈히고’와 같이 고쳐야 한다.

‘꿈고’로 고치는 것은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② ㉠의 앞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 환자들의 증상’을 서술한 문장이고 ㉡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고 국내에서 언제부터 쓰였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을 먼저 이야기한 뒤에 ‘그 증상’을 서술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러우므로 ㉠을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앞뒤 문장은 청소년들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막다른 골목’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제시된 문장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는 뜻인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앞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의 진단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진단이 어려우므로 그 대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의 뒤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옳다.

문 12.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姓은 楮이요, 이름은 白이요, 字는 無玷이다.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 채륜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 구슬을 회롱하고 흰 띠로 꾸몄으므로 빛이 새하얗다. ... (중략) ... 성질이 본시 정결하여 武人은 좋아하지 않고 文士와 더불어 노닌데, 毛學士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 ① 대나무
- ② 백옥
- ③ 엽전
- ④ 종이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지식국어

★ 정답 해설:

성(姓)인 ‘저(楮)’는 닥나무라는 종이의 원료를, 이름인 ‘백(白)’은 흰 종이의 색깔을, 자(字)인 ‘무점(無玷)’은 깨끗한 종이의 특성을 가리킨다. 또한 ‘무인은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더불어 노닌다’에서 선비가 주로 사용하는 종이를 추론할 수 있고, 붓을 의인화한 ‘모학사’가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등의 표현에서도 종이임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이첨, <지생전>

• 해제: 이 작품에 의인화되어 있는 자생(楮生)의 생애는 작자 이첨(李詹)의 실제 생애와 아주 유사하다. 작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9명의 임금을 섬기는 동안 화려한 벼슬살이를 하기도 하였지만, 직언을 하다가 여러 번 귀양살이도 하였으니, 그야말로 영욕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작가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종이의 역사나 기능에 의탁하여 당시 부패한 선비의 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려고 이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다.

• 주제: 종이의 생애, 문신으로서 올바른 삶. 근시(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와 정객들의 직간(直諫)을 주제로 위정자들에게 바른 정치를 권유

문 13.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 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
연예 스캔들 소식	㉣

- ① ㉠: 모조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④ ㉣: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정답: ② - 독해(작문) - 실용문의 작성

★ 정답 해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을 다룬 보도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양측의 의견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표현이 ㉠에 들어가기 적절하다.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의 '새삼'은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따라서 앞에서 진술한 사건이 주는 교훈이나 그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강조할 때 마지막 표현으로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 오답 해설:

- ① 양자 간의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을 다룬 보도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해당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조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는 ㉠에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③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을 다룬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결과의 향방이 주목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은 일이 돌아가는 형국이 주목된다는 뜻으로 ㉢에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④ 연예 스캔들 소식을 다룬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해당 소식에 대한 평가보다 소식이 일으키는 파급력에 대해 언급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는 ㉣에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가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관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यो.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관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엿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궁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에서 -

- ①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군.
 ② 샌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군.
 ③ 말뚝이가 궁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실을 늘어놓았군.
 ④ 도련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샌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군.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는 사실을 늘어놓기 전에 음악과 춤이 멈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궁거리장단에 맞춰 풍자하는 사실을 늘어놓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양반들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아, 이놈, 뭐야아!'라며 야단을 치고 있다.
 ② 삼 형제 중 맏이가 샌님, 둘째가 서방님이다. 양반 삼 형제는 모두 '말뚝이 뒤를 따라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고, 그중 샌님과 서방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도령(삼형제 중 막내)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에서 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봉산탈춤>

• 해제: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에서 전승되던 탈춤으로, 크게 7과장(마당)으로 되어 있다. 제1과장(4상좌춤)은 벽사의 의식무(儀式舞)이고, 제2과장(8목중춤)은 여덟 명의 목중이 각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재담을 한다. 제3과장(사당춤)은 흠아비거사가 사당을 희롱하고 7명의 거사들은 놀랑가를 합창하며 질탕하게 논다. 제4과장(노장춤)은 파계승에 대한 풍자와, 노장의 대한 풍자, 취발이가 노장을 물리치고 사랑을 쟁취하는 내용이다. 제5과장(사자춤)은 목중을 벌하기 위해 보낸 사자가 목중이 회개하자 용서한다는 내용이다. 제6과장(양반춤)은 말뚝이가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제7과장(미알춤)은 헤어졌던 영감과 미알이 만나지만, 영감의 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영감한테 미알이 맞아죽는다. 이에 남강노인이 무당을 불러 미알의 혼령을 위로해 준다.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테나 쓴다.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시일 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의존 명사인 ‘내’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내(內): 「의존 명사」(일부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범위의 안.

예) 범위 내 / 건물 내 / 일주일 내

★ 오답 해설:

① ‘해도V해도 너무한다.’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V테나 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대접하는 경우에나 쓰인다’는 뜻이므로 의존 명사 ‘테’가 오는 것이 적절하고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대접하는 테나’와 같이 쓰는 것이 옳다.

- 테: 「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 ㄴ테:

1.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사오-’ 따위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2.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참고) 제42항-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테	의존 명사	책을 다 읽는 <u>테</u> 삼 일이 걸렸다. (장소, 경우)
	어미 일부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 <u>테</u> . (종결)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 <u>거라</u> . (연결)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제시된 문장에서 ‘정공법밖에’는 명사 ‘정공법’ 뒤에 ‘그것 말고는’의 의미를 나타낸 보조사 ‘밖에’가 붙은 형태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정공법밖에’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옳다.

- 밖에: 「조사」(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어를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 밖: 「명사」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2」 겹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3」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4」 무엇에 의하여 둘러싸이지 않은 공간. 또는 그쪽.

「5」 사망, 상하를 덮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 곧 집체의 바깥을 이른다.

「6」 집안의 남자 주인을 높이거나 스스럼없이 이르는 말

참고) 제41항-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

밖에	보조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u>너밖에</u> 없다.
	명사+ 조사	집 <u>밖에</u> 나가 있어라.

문 16.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향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貨車)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멎고 그 서슬에 밀구멍으로 주르르 석탄 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 봐야 노루꼬리만큼 짧은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음이 흘러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당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쫄쫄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뽕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에서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② 향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쫄쫄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를 통해 아이들이 철조망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라는 표현을 통해,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 ‘철도 건너 저탄장’의 표현을 통해, 향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전병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작품 해설: 오정희, <중국인 거리>

- 해제: <중국인 거리>는 한 소녀로 설정된 '나'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담아 낸 성장 소설이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중국인 거리'는 '나'의 유년 시절을 보낸 공간이며,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하층민들의 피폐한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다. '나'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해나간다.
- 주제: 전쟁 직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한 소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 오답 해설:

- ① 줌도독은 작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다. 이는 위 사례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계절 독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몽둥이는 도둑을 더 위협적인 강도로 돌변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위 사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명적으로 만든 면역계의 과민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바이러스의 승리의 대가로 숙주는 죽어버렸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게 된다. 이는 위 사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소년(숙주)의 죽음과 소년의 몸속에 기거하던 바이러스의 죽음과 연결된다. 따라서 승리의 대가는 숙주가 겪는 극심한 폐렴 증세가 아닌 바이러스 자신의 죽음이다.

문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04년 1월 태국에서는 한 소년이 극심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소년의 폐는 완전히 망가져 호흡호흡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이전까지 인간이 감염된 적이 없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년은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자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른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계 일어난다.

만약 집에 ㉠ 줌도독이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만약 ㉡ 몽둥이를 들고 도둑과 싸우려 든다면 도둑은 ㉢ 강도로 돌변한다. 인체가 H5N1에 감염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으로 새가 아닌 다른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 결과 50%가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다. 그러나 ㉣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숙주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 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약명을 떨치면서도 조류 독감의 사망 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이 질병이 아직 사람 사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① ㉠: 면역계의 과민 반응
 ② ㉡: 계절 독감
 ③ ㉢: 치명적 바이러스
 ④ ㉣: 극심한 폐렴 증세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문맥 추론

★ 정답 해설:

강도는 몽둥이로 인해서 줌도독이 위협적으로 돌변한 결과이다. 이는 위 사례에서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줌도독)가 인간의 면역 반응(몽둥이)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친 바이러스(강도)로 돌변한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강도는 계절 독감이 돌변한 치명적 바이러스이다.

문 18.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ㄱ.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 ㄴ.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 ㄹ.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ㅁ.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

- ① ㄱ-ㄷ-ㄹ-ㄴ-ㄱ ② ㄱ-ㄷ-ㄷ-ㄴ-ㄱ
 ③ ㄷ-ㄴ-ㄹ-ㄱ-ㄱ-ㄷ ④ ㄷ-ㄹ-ㄴ-ㄷ-ㄱ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배열

★ 정답 해설:

- ㄱ. 1700년대 중반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다.
- ㄷ.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남북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의 이유로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 과학적/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 없는 시장 경제 등을 꼽으며,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 ㄴ. 미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로 문장이 시작하므로, 앞서 현재 문장과는 반대의,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제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 ㄷ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경제 성장의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고, ㄷ에서 여러 분야가 제시되었으므로, ㄷ-ㄴ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 ②, ④ 탈락
-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을 제시하고 있다.
- ㅁ. 미국인들이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 자원, 흑인 노동력이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문장은 ㄱ(평균 소득)과 ㄷ(경제 성장)인데, ㄱ은 '1700년대 중반'을, ㄷ은 '19세기'를 말하고 있으므로, ㅁ에서 말하는 초기 정착기는 ㄱ을 의미한다. 따라서, ㄱ이 ㅁ보다 먼저 제시된다. → ③ 탈락
- 따라서, ㄱ-ㄷ-ㄹ-ㄴ-ㄱ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문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지문의 소재는 확증 편향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를 수용하거나 무시/부정하는 심리적 경향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행동하지 않게 한다. 즉,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 ② 확증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에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둘째 문단의 예시를 보면,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즉,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 ③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수용한다. 또한, 확증 편향은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지지자의 말은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로, 신념의 강화는 신념의 유지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은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문 20. 밑줄 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유화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卵]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닭 되지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 내다 버리게 했더니 소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덮어 주었다. 왕이 쪼개 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어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 잘 먹어서 살찌게 했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 ㉢: 껍질을 깨고 나온 주체는 아이, 즉 주몽이다.
 ㉤: 둔한 말을 잘 먹어서 살찌게 한 사람은 '주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의 주체는 주몽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오답 해설:

- ㉠: '몸을 피하는' 주체는 '유화'이다. '금와왕이 유화를 방 안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유화가)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내다 버리게 했더니'의 주체는 '(금와)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금와)왕이 그것(알)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먹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이어 (금와왕이) 다시 (누군가에게 시켜) (알을) 길에 내다 버리게 했다는 맥락이 자연스럽다.
 ㉢: 껍질을 깨고 나온 주체는 아이, 즉 주몽이다.
 ㉣: '활 잘 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주몽'이라고 불렀다는 말이므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 맥락상 '없애지 않는다면'의 주체는 '대소(금와왕의 맏아들)' 혹은 '금와왕' 혹은 그 둘을 포함한 '우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작품 해설: 작가 미상, <동명왕 신화>

- 해제: 이 작품은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그린 건국 신화이다. 따라서 영웅의 일대기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데,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난생 신화(卵生神話)'에 해당되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른바 '어벌성교(魚鰓成橋: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가 되어 줌)'의 유명한 모티프도 포함되어 있다.
- 주제: 고구려의 건국의 과정